

# 中原 崇善寺址 出土 서까래막새기와에 대하여

張 俊 植

忠州지방은 충청북도내에서 瓦當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와당의 출토가 많다는 것은 고대사회에서 佛事가 크게 성행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불사가 많았다는 것은 이 지역이 문화적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음을 말해 준다 고 하겠다. 一九八一年 도말에 충청북도에서 발견한 증원문화권유적 분포도①에 수록된 충주지역의 佛蹟地가 七〇여 곳을 넘고 있으니 산간벽지의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은 곳까지를 포함한다면 실로 방대한 佛蹟을 가진 지역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충주지방의 역사상 주목되는 곳에서 출토되어진 와당들은 중앙과 지방학계의 연구대상이 되어지고 그에 관하여 수편의 글이 발표된 바 있다②.

近年에 충주지방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바가 없는 蓮華紋초가리기와(서까래막새와당) 一점이 中原郡 薪尼面 文崇里의 廢寺址에서 수습되었기에 本稿에서는 이 초가리기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초가리기와는 충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나 신라의 故土에서도 출토된 숫자가 숫막새 와당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데다가 이에 저술된 와당관계의 책자에서도 초가리기와의 편년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뚜렷한 내용이 記述되지 않아 이 기와 연구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미진한 점은 훗날 새로운 초가리기와가 출토되면 비교연구하여

보충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이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中原郡 薪尼面 文崇里 崇善부락의 북방 수리산 기슭에 약 三浬평에 달하는 寺址가 있다. 마을입구에 높이 三七〇cm 정도되는 거대한 幢竿支柱가 있고 발이된 寺址에는 瓦片和 瓷器片 등이 散在한 것으로 보아 규모가 상당히 컸던 伽藍이었음이 확실하다③. 그동안 학계와 일반의 무관심속에 잊혀져가고 있었다. 최근에 忠州藥城同好會와 淸州의 西原學會의 수차례에 걸친 현지답사에서 각종의 銘文瓦가 수습되었고 출토된 명문와와 관계 文獻을 조사하여 逸名寺址의 내력을 알게 되었다. 한때 주민들에 의해 「崇善里의 절터」 또는 「회국사지」 등으로 불리던 이곳은 高麗 초기인 光宗五年(九五四年)에 創建된 崇善寺이며 그후 明宗一二年(一一八二年) 년간에 크게 중수했음을 밝힌 바 있다④. 그간 여러차례의 답사에서 「崇善寺」라는 寺名을 陽刻한 銘文瓦와 「大定二十二年 壬寅四月」이란 干支가 陽刻된 銘文瓦는 물론 다량의 암막새와당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同寺址에서 一九七九年 四月 八日 一점의 초가리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 와당은 승선부락에 거주하는 李鍾泰씨가 수습한 것을 中原郡廳에 근무하는 張炳烈씨가 취득하여 예성동호회에 기증하여 現在 本會에서 보관중이다.

## 一

기와의 종류에는 평기와 막새기와 망새기와(望瓦)로 大別된다. 다시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평기와는 숫기와 암기와로, 막새기와는 숫막새기와 암막새기와, 초가리기와로 구분되며, 망새기와는 용마루용, 내림마루용, 獸頭로 구분한다. 건물구조에서 평기와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막새기와로서 와당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지붕의 가장자리를 막음하여 깨끗하게 마무리짓는 막음기와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와에 관한 연구는 대개 막새기와를 대상으로 하여 막새기와에 나타나는 紋樣을 분류하고 계통을 잡는데 치중하여 왔다. 막새기

와는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다양한 紋樣이 나타나며 造瓦技法등와 당제각 당시의 時代性이 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상과 미술 또는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5)</sup>.

초가리기와에 대해서 신라의 기와라는 책에서는 『서까래끝에 박는 기와처럼 만든 막새』 『서까래 끝에 장치하는 막새기와』로 풀이했으며 계속하여 『이 기와는 木部材의 끝에 붙이는 치장용 기와이다. 건물에서 연목이나 부연 추녀와 사래 끝에 붙었던 막새기와인데 연목 끝에 붙었던 기와를 연목초가리기와, 부연끝의 것을 부연초가리기와, 추녀끝의 것을 추녀초가리기와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연목초가리기와는 원형의 것과 사각형의 것이 있는데 원형의 것은 지붕의 솟막새기와와 모양이 거의 같으나 막새 뒷쪽에 평기와가 붙지 않았다. 원형초가리 기와는 둥근연목에 붙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 초가리기와는 木材에 부착하기 위해 보통 중앙에 못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에서는 서까래막새로 통칭되는 이 와당을 위책에서는 초가리기와로 命名하고 있다. 한편 百濟瓦當에 關한 研究에서는 서까래기와(椽木飾瓦)로 表記하였고 朝鮮瓦博圖譜<sup>6)</sup>에서는 垂木瓦로 表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연목초가리기와나 서까래막새나 같은 용도의 같은 형태의 와당인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서까래막새로 칭하고자 한다.

### 三

원래는 一 二개의 蓮瓣을 가진 와당이였을 것이나 현재는 子房과 四개의 연판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결실되었으니 규모로 볼 때 삼분의 一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 와당의 색깔은 灰白色이며 모래 한톨 섞이지 않을 만큼 극히 精選된 胎土에 단단한 편이다. 두께는 慶州나 公州, 扶餘 지방에서 출토되는 서까래막새들에 비해 현저하게 얇은 편이며 背面에는 施紋자국이나 굴곡됨이 전혀 없이 매끄럽기 조차 하다.

먼저 子房의 형태를 보면 中央에 원형의 못구멍이 뚫려있고 못구멍의

주위에 八개의 蓮子가 배열되어 있다. 자방의 만들어짐이 직선의 線으로서 圓形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방의 外面을 주름잡는 式으로 하여 花形을 만들었음이 주목되고 있다. 자방의 주위에 장식과 치장을 하는 것은 新羅統一期以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으나<sup>7)</sup> 이 와당은 자방의 외곽이나 자방의 윗면에 장식을 가한 것이 아니라 자방자체를 花形으로 변경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 와당의 전체면에서 볼 때 자방의 형태가 비교적 큰 것으로써 이는 시대의 하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자방이 크고 二단으로 된 점과 질은 회백색의 색상과 태토로 보아 백제계의 와당으로 연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방자체를 花形化한 것은 백제와당에서는 그 類形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百濟의 故土에서 출토된 서까래막새들은 연목와 이던 부연와 이던간에 대부분 중앙의 못구멍의 형태가 원형이 아닌 四각형을 이루고 있어 백제계열의 와당으로 추정하기에 는 합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방과 연판 사이에 隆起된 굽은 선이 조형되어 있음은 慶州 皇龍寺址에서 出土된 서까래 막새와<sup>8)</sup>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으나 승선사지 서까래막새와 황룡사지 서까래막새와는 자방 蓮子の 有·無와 연판의 근본형태를 각기 달리하고 있어 연판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판의 형태를 살펴보면

자방의 외곽에 돌기된 테두리에 蓮根部를 달고 위로 直線的으로 펼쳐진 蓮瓣은 完全한 것이 三엽이며 一엽은 반파되어 모두 四엽만을 볼 수 있으나 相對하여 추정하면 一 二엽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방에 돌기된 花形紋의 表現이 一 二면이며 그 하나 하나가 연판의 中央部에 位置하도록 배열되었기 때문에 一 二판엽을 갖았음은 더욱 확실한 것이다. 여하튼 이 와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판의 形態이다. 연판의 기본형식은 가름하면서 길쭉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蓮端쪽은 아래로 처지고 蓮瓣의 中央은 약간 돌기되었으며 연판의 끝부분은 뾰족하면서도 버선코와 같이 反轉되어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이 와당에서 연판의 형태만을 가지고 論한다면 이것은 高句麗 瓦當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고구려양식

의 연판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 서까래막새의 연판은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의 원통형(台座 위)의 蓮華紋(伏蓮)과 꼭 같다고 하겠다<sup>9)</sup>.

이 불상은 비록 南쪽 지방에서 발견되고 延嘉라는 年號가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은 연호라고는 하나 光背후면에 陰刻된 「延嘉七年歲在乙未高麗國樂良東寺」라는 銘文에 의해 高句麗의 佛像임이 분명한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연화문와당 중에서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의 蓮華座와 가장 유사한 연판의 形態가 바로 崇善寺址 出土 서까래막새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蓮端쪽이 처지고 연판의 끝이 反轉된 점, 특히 蓮瓣에는 中央을 가로지르는 縱線이 없으나 間葉에는 나타나 있는 점 등은 佛像에 있는 蓮華座를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金和英先生은 中原 可金面 塔坪里出土 六葉蓮華紋瓦當의 연판의 形態가 延嘉銘 佛像의 蓮華座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였는데<sup>10)</sup> 그 보다는 서까래막새의 연판형태가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이 瓦當의 연판과 연판 사이에는 현재 三個의 間葉이 보인다. 간엽의 형태가 뾰족하면서 반진된 점은 연판의 형태와 유사하나 中央에 縱線을 그어 판단을 양단하고 그 양옆을 內曲시켰음을 볼 수 있는데 종선이 表現으로서 연판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있다. 間葉은 三國時代 瓦當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瓦當에서 間葉의 有·無가 年代와 樣式을 추정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좋은 예가 中原 塔坪里出土 六葉蓮華紋 수막새와당에서 찾을 수 있다. 위 와당은 三國期의 것으로 高句麗의인 瓦當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sup>11)</sup> 이 와당에도 승선사지 서까래막새와당에 나타난 간엽과 꼭 같은 형태의 間葉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막새와당에서 蓮瓣의 수효는 고구려에서는 초기에 四葉 그 후에 六葉, 八엽의 형태를 취하며 그중에서 八엽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백제에서는 역시 八엽을 기본형으로 하고 末期에 가서 六엽의 형태가 보이니 고구려와 백제의 연화문 와당의 기본형은 八엽이라 하겠다. 다

만 신라에서는 六엽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선사지 서까래막새는 연판의 수가 一二엽이던 점을 볼 때 삼국기에 제작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연판의 수가 증가하고 연판의 형태가 단조로움에서 복잡, 화사하게 표현되는 것은 신라통일기 이후에 나타나는 양식이란 점과 특히 삼국기의 막새와당에서 一二연판을 취하는 형태가 그리 많지 않은 예로 보아서 승선사지 서까래막새와당의 연판은 시대의 하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공주나 부여 또는 경주에서 출토된 서까래막새 와당들에 비해 승선사지 서까래막새와당은 두께가 지나치게 얇은 점이다. 이것 또한 후대의 양식에 속한다고 하겠으니 승선사지출토 서까래막새는 색상과 태도 그리고 연판의 형태에서는 삼국기 와당의 잔존을 볼 수 있으나 복잡해진 연판의 수와 자방의 변형 등을 종합할 때 고려초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자방이 二단의 형태로 된 점과 자방 주변에 또다른 장식은 없다 하더라도 자방의 형태가 花形化한 것은 고려시대 막새와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인 것이다. 이러한 자방을 가진 형태의 와당은 주로 한강 이북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 四

이 서까래막새가 주목되는 점은 와당의 정교함을 볼 때 극히 우수하면 서 품격 높은 와당이란 점과 연판의 형태가 「延嘉七年銘 金銅佛」의 蓮華座와 너무도 유사하므로 고구려적인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瓦當들 중에서도 고구려적인 요소를 흡수한 와당을 간혹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출토지는 대부분 개성과 평양 등 한강이북 지역에 국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고구려적인 양식을 가진 고려시대의 와당이 충주 지방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로서 이것은 百濟古都에서 造成된 後代의 佛像이 古代의 傳統樣式을 따랐으며 高

麗의 石塔이 扶餘지역에서는 定林寺址의 백제탑 양식을 따라 건립되어 소위 백제식 석탑이 유행하였다는 사실과 對比할 수 있다고 하겠다<sup>10)</sup>. 특히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충주를 國原城이라 하여 남방경영의 충주 지로 했던 역사적 환경<sup>11)</sup> 때문에 「충주지역」에는 고구려의 문화와 그 전통양식이 後代의 건축과 조각 공예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崇善寺址출토 서까래막새는 그 연관의 형태는 고구려의 양식을 성실히 따랐으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崇善寺의 創寺 연간인 고려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實測值(cm)

總 徑	九、五	間葉幅	一、三
子房徑	四、三	蓮子幅	〇、三
두 께	一	子房돌출	〇、五
못구멍	〇、五	蓮瓣間	四
蓮瓣長	三	蓮瓣과 子房의 사이	一、二
蓮瓣幅(中央)	二	바깥자방경	五、三
蓮根幅	一、五		

[註]

- ① 中原文化圈遺蹟分布圖索引 p. 17~33. 忠清北道 忠北大學校(一九八二)
- ② 金和英 『塔坪里출토蓮華紋瓦當』 考古美術(一九七六, 六月號)
- 申榮勳 『德山公草銘瓦』 藥城文化 創刊號 p. 39~39(一九七九)
- 李在俊 『忠北의 기와』 p. 148~157(一九七九)
- 中原郡彌勒里石窟實測調査報告書 p. 152~168. 中原郡(一九七九)
- 彌勒里寺址發掘調査報告書 p. 53~66. 清州大學博物館(一九七八)
- 柳昌宗 · 『忠州연발출토七葉蓮花紋小考』 藥城文化創刊號 p. 13~14(一九七九)
- 九) 『中原塔坪里出土 無紋瓦當의 考察』 p. 15~16. 『中原탑坪리출토 六葉 연발문수막새』 藥城文化二號 p. 8~12(一九八一)

金顯古 · 『廣濟庵寺址發見記』 藥城文化二號 p. 19~23(一九八一)

許仁旭 · 『그림있는 기와』 예성문화二號 p. 28~29(一九八一)  
 崔榮益 · 『院洞寺址의 관한 小考』 예성문화三號 p. 28~29(一九八一)  
 張俊植 · 『傳金生寺址考』 예성문화 창간호 p. 19~21(一九七九)

『塔坪里出土瓦當』 『國原城治址의 관한 研究』 『院洞寺址 六葉蓮花紋수막새』 p. 52~66, p. 83~88. (一九八一)

- ③ 忠州地方的 寺址중에서 幢竿支柱가 있거나 발견된 곳은 中原郡 上莒面彌勒里寺址와 崇善里寺址뿐임.
- ④ 金禮植 · 『明昌二年銘瓦를 통한 中原地方的 佛事』 예성문화창간호 p. 10~12(一九七九)
- 金顯古 · 『崇善里寺址와 그 建造年代考』 예성문화 二號 p. 20~27(一九八一)
- ⑤ 朴容煥 · 『百濟瓦當에 關한 研究』 公州教育大學論文集 五輯 p. 34~35(一九六八)
- 新羅의 기와 p. 335~380 참조. 東山文化社編(一九七六)
- ⑥ 朝鮮瓦磚圖譜 · 日本井內古文化研究室編(昭和五十二年刊)
- ⑦ 金和英 · 前掲書 p. 145.
- ⑧ 一九六二, 四, 慶州皇龍寺址出土 서까래막새는 비록 慶州地方的 出土라 하더라도 百濟係의 新羅기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皇龍寺의 創建은 百濟의 목수와 장인이 와서 건립했음이 三國遺事와 皇龍寺 九층木塔의 塔誌에서 證明되는 바이다.
- 新羅의 기와 p. 368~370. 참조.
- ⑨ 國寶一一九號, 一九六二경상남도 의령군 내의면 하촌리에서 발견됨. 원형 台座위에 끝이 약간 反轉된 單瓣伏蓮이 있다. 五三九년 또는 五九九년에 製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⑩ 金和英 · 前掲書 p. 145.
- ⑪ 金和英 · 前掲書
- 柳昌宗 · 『中原塔坪里出土 六葉蓮花紋수막새』 예성문화二號(一九八一)
- 張俊植 · 『中原塔坪里出土瓦當』 『國原城治址의 관한 研究』(一九八一)
- ⑫ 朝鮮瓦磚圖譜 高麗編 p. 22~23. 사진번호 七六, 七七, 七八, 八二, 八五등 참조.
- ⑬ 黃壽永 · 百濟의 佛像彫刻(考古美術 一五〇輯 p. 72, 一九八一, 六)
- ⑭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雜志第六地理四高句麗條에 『國原城一云未乙城...』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雜志第四地理二에 『中原京本高句麗國原城...』 東國輿地勝覽 卷第十四 忠州建置沿革條에 『本高句麗國原城云云...』



圖 1. 中原崇善寺址出土 서까래막새기와



圖 2.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蓮華台座



圖 3. 中原塔坪里寺址出土 蓮華紋막새기와 (其. 1)



圖 4. 中原塔坪里寺址出土 蓮華紋막새기와 (其. 2)